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줄 의사의 책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3년 세계금연의 날 주제를 “보건서비스 : 담배없는 세계를 위한 장문”으로 정했다. 이는 보건 관계자들과 보건외로계 지도자 및 종사자들이 담배연기없는 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 금연을 시행하여 일반인에게 모범을 보이며, 또한 환자와 의료진들을 수동적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바로 지금이 담배없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현 대의 의학연구는 환자를 줄이고 질병을 퇴치하는 성공적인 치료의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동시에 의료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위기가 닥쳤을 때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직업적, 환경적, 생활습관적인 위험요인들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강손상을 미리 예견하고 예방할 것을 기대한다. 모든 이를 위한 건강정보와 건강교육은 의사들의 “작고 검은 가방”속에 있는 지극히 중요한 약제사리인 것이다.

담배없는 세계를 위한 WHO의 노정은

예방이나 교육을 위하여 단순히 흡연의 희생자를 치료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도덕적이고 의학적인 우선과제의 변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보기인 것이다.

그 캠페인의 목표는 “생체윤리적”이고, “생체의학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따라서 건강과 건강교육에 대한 만인의 권리, 급성질환의 치료를 능가하는 예방의 효과, 증독자의 투쟁 그리고 알리고 교육하여야 할 직업적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수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환자에게 흡연의 위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환자에게 장기에 대한 것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은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데 비해 흡연에 대해서는 묻기를 망설인다.

Doctor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가르치다는 뜻의 *docere*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의 책임인데,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어떻게 질병을

WORLD NO-TOBACCO DAY

31 MAY 1993

예방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어리석음 자유는 있지만, 의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동의할 자유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책임은 자신의 환자가 훈련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책임은 단순히 금연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연장된다. 어떤 방법으로 끊어야 하는지, 흡연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말해주어야 할 책임을 수반한다.

동시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교사로써, 의사는 스스로 금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내가 행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한다면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다른 모든 보건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중에게 흡연의 위해에 대해 가르치고 알리고 빼어난 모범이 됨에 있어 도덕적 책임을 진다.

당신의 병원은 금연구역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왜 아납니까?

1990년까지 세계의 68개국에서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금연을 실시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공중보건시설에서 금연이나 절연뿐 아니라, 보통 시립병원이나 의원, 의사 및 치과의사의 대기실과 약국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법과 규제사항이 있더라도, 병원, 의원과 건강센터에 적용시키기에는 거의 구체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보건분야 종사자들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역할모형으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보건체계의 각 요소들과 흡연을 구분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흡연에 대해 환자나 의사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김희정/역)

담배연기 싫어요
맑은공기 원해요